

# 하반기 공공기관·공기업 채용 문 열렸다

한전, 16일까지 대졸 210명  
고졸 채용형 인턴 160명 모집  
수자원·도로공 인턴 등 채용  
혁신도시 기관 지역인재 가산점

올해 하반기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공기업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경우 광주·전남 지역인재 채용 가산점(각사 다른 기준)이 있어 지역 대학생들에게는 좋은 기회다. 올해 빛가람혁신도시를 비롯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법제화됨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은 지난해 지

역인재 의무채용 목표비율 18%를 시작으로 매년 3% 이상 확대해 오는 2022년까지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워갈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오는 16일까지 올해 두 번째 '대졸수준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채용규모는 210명 규모로, 지난 상반기에는 570명을 뽑았다. 한전은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시행하며 광주·전남지역 대학 출신에게 서류전형 가산점(3%)을 줄 예정이다. 같은 기간 동안 고졸 채용형 인턴도 160명 모집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도 오는 11일까지 대졸사원 53명(비수도권 지역인재 10명 포함)을 뽑는다. 코트라는 오는 12일까지 청년·장애인 부문으로 체험형 인턴을 각각 50명·20명 모집한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오는 16일까지 일반직 신입사원(채용형 인턴) 모집공고를 낸다. 일반공채(90명)와 함께 30명 규모의 사회형평(보훈·장애인) 부문도 진행하며 전문직 경력사원 19명도 뽑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58명(-12일), 국립공원공단은 56명(-5일)의 새내기 직원을 기다린다. 한국도로공사는 10일까지 청년인턴(체험형) 218명을 모집한다. 한편 취업정보사이트 사람인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된 361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신입사원 평균 초임은 353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3418만원) 대비 3.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4000만원 이상 지

급하는 곳이 23%로 가장 많았다. ▲3200만~3400만원 미만(15%) ▲3400만~3600만원 미만(13.6%) ▲3600만~3800만원 미만(11.6%) ▲3000만~3200만원 미만(10.8%) ▲2800만~3000만원 미만(9.1%) 등의 순으로, 3000만원 이상 지급한 기관은 10곳 중 8곳꼴(82.3%)이었다. 2017년 대비 초봉 상승률이 가장 높은 기업은 아시아화학으로 2520만원에서 3447만원으로 36.8% 증가했다. 나주 혁신도시의 주요 기관 신입사원 초임은 한전 3840만원, 한국인터넷진흥원 3865만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504만원, 한국콘텐츠진흥원 3103만원, 한국농어촌공사 3066만원 등이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전 제3차 전력경제포럼 전력산업 현안 발표·토의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중갑)은 4일 나주 한전 본사에서 김중갑 한전 사장, 김정인 전력경제포럼 회장(중앙대 기후경제학 교수)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전력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전력경제포럼은 국가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 2월부터 개최됐으며, 산·학·연 오피니언 리더 31명이 회원으로 참여해 분기별 정기 세미나를 갖고 있다. 이날 포럼은 전력산업분야 현안발표와 토의로 진행됐다.



김성진(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광주테크노파크 원장과 최희운( / 다섯번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은 4일 광주테크노파크 회의실에서 데이터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을 맺었다. <광주테크노파크 제공>

## 광주테크노파크·과학기술정보원 데이터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 체결

광주테크노파크(원장 김성진)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최희운)은 4일 광주테크노파크 회의실에서 데이터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친환경 공기산업 등 지역산업 육성에 필요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보유 과학기술 데이터에 대한 공유 및 지원 ▲융복합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공동 협력 ▲지역 산업 진흥·발전을 위한 경영, 기술개발, 품질향상 등에 필요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최근 광주가 4차 산업혁명으로 추진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인 AI(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조성사업) 육성은 물론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 중인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 관련해 데이터분석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실질적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 데이터 자원과 학술정책, 융복합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성진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지역산업 및 신산업 육성과 관련한 데이터 분석이 안돼 연구개발과 생태계 조성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 협약이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분석을 통해 앞으로 광주가 추진하는 AI산업과 친환경 공기산업 데이터 생태계 변화·혁신을 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전남중기청 이달까지 전통시장 지원 사업자 공모

내년에 추진될 광주·전남지역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사업자 선정이 예년보다 6개월 빠른 오는 9월께 이뤄진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사업 공모를 통해 '2020년도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11개 세부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사업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사업공고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고, 지자체에는 내년 예산 편성시 지방비를 사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년보다 6개월 앞당겼다. 모집 대상사업은 소규모환경 구축을 위한 전통시장 주주환경 개선사업과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복합정년별 조성 등 11개 분야다.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530여 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08.73 (+12.71)	↓ 금리(국고채 3년) 1.42 (-0.01)
↓ 코스닥 691.27 (-1.77)	↓ 환율(USD) 1168.60 (-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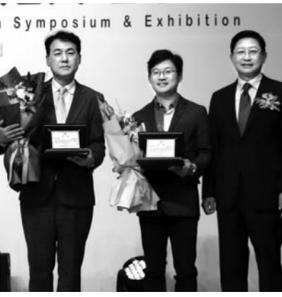
## 금호고속 8년 연속 한국서비스대상 수상

금호고속(사장 이덕연·사진 왼쪽)이 '2019 한국서비스대상'에서 8년 연속으로 고속버스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표준협회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한국서비스대상은 고객 중심의 경영활동을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 개선에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기업과 개인을 포상하는 제도다. 금호고속은 리더십, 전략, 고객과 시장 중심, 정보와 지식, 인적자원, 부문별 경영성과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금호고속은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업계 내에 '도로 위의 퍼스트 클래스'라고 불리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개발 및 도입을 주도해 한층 진화한 고객의 요구를 반영했다. 또 업계 최초로 ADAS(첨단운전자지원장치) 및 신DTG(디지털운행기록계)의 각종 데이터를 종합해 K-DRI(금호운전자 지원 관리지수)를 산출하는 등 승무사원 운전습관 계도에 적극 활용, 안전운행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덕연 금호고속 사장은 "그 동안 보내 주신 사랑과 성원에 감사한다"며 "금호고속은 고객을 가족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내 운수업체의 선두기업으로서 책임과 자신감을 갖고 최고의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대우플러스 '나노코리아 어워드' 조직위원장상

대우플러스는 '나노코리아 2019 어워드'에서 조직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나노코리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과 나노기술연구조합의 주관하는 행사로 국내외 최신 나노기술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7주년을 맞이했다. 대우플러스는 나노코리아 2019 어워드 나노산업기술 경쟁 부문에 참가해 '에너지 절감 탄소 나노 면상 발열체' 제품을 선보여 상을 수상했다. 탄소 나노 면상 발열체는 나노 소재 물질을 잉크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으로 다양한 발열체 모양으로 인쇄를 해서 찍어낸 뒤 전기를 공급해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발열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대우플러스는 탄소 나노 면상 발열체를 비롯해 알루미늄 복합체, 나노 파우더 등 국내외 특허를 포함해 20여건 이상



보유하고 있다. 대우플러스 관계자는 "이번에 수상한 탄소 나노 면상 발열체 양산화를 통해 전 기자동차 난방 시스템, 스마트팩, 건축, 가전 등 산업 전반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5G 기술과 융합해 신시장 개척 및 미래 먹거리 시장 개발을 위해 나노 산업 투자를 지속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그린알로에

# 그린궁 HOME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